혁신 유감.....

Pity on Innovation

이 준 성 Yi, June-Seong
정회원, 이화여대 건축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jsyi@ewha.ac.kr

유행과 시대정신

팬데믹, 4차산업혁명, 가상화폐, K-culture,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ESG, 탄소중립... 요즘 TV 채널을 돌리거나 각종 매체의 기사들을 접하다보면 위에서 언급된 키워들 이외에도 수많은 용어들을 만나게 된다. 대부분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중 일부는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주제어로 인식되고 있다.

관념론자인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은 특정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이 있으며 그것을 '시대정신(Zeitgeist)'이라 칭했는데, 이러한 시대정신은 해당 시대가 끝난 후에만 알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현재 우리 주변에 범람하고 있는 용어들이 향후 시대정신 혹은 일시적 유행(fad) 중 어느 부류로 포함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본고를 시작하면서 언급된 용어 모두가 시대정신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적절한 위계는 아니겠으나, 분명히 앞으로 당대의 시대정신을 논할 때 주요한 요인으로 언급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급속한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우리 사회는 개혁 혹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하며 적응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많은 기관과 개인들이 선진화, 혁신, 고도화, 부가가치 창출 등과 같은 구호들을 통해 본인들이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지만, 과연 그들 중 얼마나 본인 주장대로 인정받고 있을지는 미지수다. 마치 우리 주변을 떠돌고 있는 수많은 용어들 중 진정한 '시대정신'을 찾기 어렵듯이...

혁신 증후군

최근 들어 포스트코로나(혹은 위드코로나) 시대로의 진입이 조심스럽게 언급되고는 있지만, 지난 몇 년 인류는 COVID 19로 인하여 그간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한편 그간 국제사회 운영에 기반이된 경제공급망 질서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산업전반과 사회 시스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파괴적 변화가 촉발되었다. 국내 건축업계도 예외일 수는 없었으며, 특히 대면교류 및 노동집약적 현장생산체계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상 타분야에 비해 그 파장은 더욱 컸다고 할 수 있다.

'증후군(syndrome)'이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련의 증세들이 반복적이고 만성화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활동에 장애를 유발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필자는 요즘 들어 우리 사회가 극심한 '혁신 증후군'을 겪고 있는 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곤 한다. 즉 혁신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은 망각한 채, 습관적 개선활동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물론 모든 시도와 노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 본질에 대한 고민보다는 표피적인 단순개선을 혁신이라 참칭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혁신이 필요한 혁신

사회전반에 범람하고 있는 '혁신'에 대해서 많은 구성원들이 다소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빠른 속도로 내닫고 있는 혁신이라는 이름의 열차에서 하차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내건축계가 지속적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

해온 각종 활동들이 과연 '혁신'이라는 가치창출에 부합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그 분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까지의 추진활동 공과를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아쉬운 지점은 다수의 수행주체들이 규모 확장과 발전 속도에 지나치게 집착한 점이라 할 수 있을 듯싶다. 외형적인 규모 성장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다 보니 수익성, 효율성, 품질, 브랜드 위상 등 여타 전략적 목표를 상당 부분 도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러분들도 몇몇 건설사가 사세확장을 목표로 진행한 무리한 인수합병으로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시달렸던 사례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규모성장에 대한 치중과 더불어 업계 전반에 만연한 속도 집착증 또한 진정한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 우리 건설업체들이 중동,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공기를 단축시켰던 실적이 요즘도 종종 회자되고 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효과적인 실행계획 관리를 통한 공기단축은 소중한 자산이 되겠지만, 자칫 속도 중심 운영이 각종 부실공사 및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래도 혁신은 계속되어야 한다

국내 건축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와 경고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복합적인 시장상황 악화에 따른 산업차원의 어려움은 심화되고 있으며, 젊은 건축인들에게 '탈건(축)'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실정이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후속세대의 이탈은 현재 건축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일시적 어려움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만약 단기성과 위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땜질식 처방에 머물러 작금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해결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특히 기존 패러다임에서 통용되던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초연결성, 초지능성, 포스트팬데믹 등으로 대변되는 뉴노말 시대의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건축분야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관계 시행령 개정에 이어 '제6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23~2027)' 수립 절차 등을 추진한 바 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으로, 건설기술의 개발 및 건설기술 인력의 육성, 건설공사 안전, 환경, 보건 및 품질의 확보,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대책 등을 담고 있다. 혹자는 관련 계획과 법령들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사실 필자 또한 그 실효성에 대해 아쉬움은 많다. 그러나, 산업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대응에 적절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도출전략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노력은 폄하되면 안 될 것이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110대 국정과제를 보면 건축분야 혁신과 연계된 몇몇 주제가 눈에 띈다. 전통적인 현장생산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OSC(Off-Site Construction), 스마트건설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이 반영되었다고 평가되며, 이제 건축분야도 노동집약적인 기존 사업구조에서 탈피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화하는 전환점에 이르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현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생산체계 진단 등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계획 및 실행실적들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통해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새롭게 수립된 계획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맺음말

그 끝을 알 수 없어 보이던 팬데믹의 터널에서 이제 저너머 흐릿하나마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듯싶다. 우리에게 팬데믹의 끝은 종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것이고, 새롭게 맞닥뜨리는 세상은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근원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결국 우리 사회는 혁신으로 대변되는 시대정신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가리라 믿는다.

이제 다음과 같은 위로의 말로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혁신(Innovation)氏, 여기저기 불러 다니느라 그간 너무 고생했어요. 너무 귀찮게 한 것 같아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앞으로도 계속 만나도록 합시다~"